

9평 예열 문제

1. 모의고사 당일.

1. 7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한다.
2. 편한 마음으로 예열 문제를 푼다.
3. 혹여나 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예열 지문일 뿐이다.
4. 아는 걸 틀리지만 말자!

2. 자료 사용법

1~3등급 : 전 문항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푼다.

4등급 이하 : 화작문만 우선적으로 풀고, 시간이 남는다면 나머지 지문들을 풀어보자!

3. 전하고 싶은 말

9월 모의고사는 수능 전 내 위치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능 당일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시험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실력대로 응시하되,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80여 일 남은 시점에서 내 숨겨진 약점들을 보완할 기회라고 생각 해봐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그럼 몇 달 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이 점수로 드러날 겁니다.

나답게 치고 옵시다.

잘 할 테니까, 잘 하고 와요.

[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2021. 6월 [1~3]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 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 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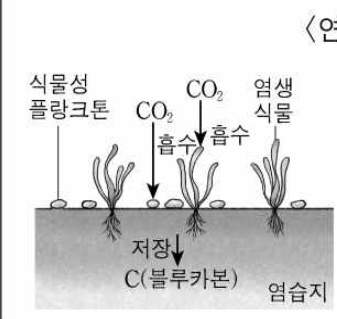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식물성 플랑크톤, CO₂ 흡수, 염생 식물, CO₂ 흡수, 저장 C(블루카본), 염습지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①

○ 연설 내용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9. 수능 [14]

<보 기>

-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 9월 [16~19]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 기대어 실재와 같이 표현하면 ㉢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롬프뢰유*의 흐름을 ㉤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롬프뢰유(trompe-l'oeil) :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5. ㉦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롬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재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7.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8.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 9월 [16~20]

(가)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져 흐야 십재황황(十載惶惶)* 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흐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흐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흐니 못 이룰까 흐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흐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흐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 흐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 흐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흐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명들고 늙은 나를
뒤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흐니 오라 말라 흐느뇨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험가지라
은(隱)커나 현(見)* 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 견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2.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밭'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9월 모의고사 예열 문제 선별 빠른 정답

[1~3] 2021.06 [1~3]			
1	2	3	
①	⑤	④	

[4] 2019.11 [14]	
4	
③	

[5~8] 2018. 09 [16~19]				
5	6	7	8	
①	⑤	③	②	

[9~12] 2019. 09 [16~20]				
9	10	11	12	
①	②	⑤	③	